

2012 아시아 EPS 생산자기구(AMEPS) 회의 보고

지난 12월 6~7일 중국 우시에서 개최 된 2012년 AMEPS 회의에서 발표 된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 한다.



한국 협회(KFRA) 설립 20년 성과(최주섭 부회장)

- 국가환경정책의 변화에 대응한 협회 설립과 대응
- EPS 포장재의 분리수거 실시에 따른 재활용체제 구축
- 생산자재활용책임제 도입으로 공제조합 운영
- EPS 재활용 성공요인: 좋은 정책, 완벽한 재활용체제 구축, 재활용 기술 및 제품의 수품 경쟁력 제고,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
- EPS 포장재 규제 전면 철폐와 EPS 소비 증가

필리핀의 EPS/PSP 재활용 현황(헨리 회장)

- PS재질 포장재 사용억제 방침 검토: 지방정부, 환경단체, 학교, 기업들이 사용 억제를 주장하고 있음
 - *사유: 난분해성, 쓰레기 문제, CFC 함유 여부, 건강 위해, 정부 미규제
- 포장재 업계 대응: EPS/PSP는 100% 재활용이 가능함, 분리수거 필요
-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재활용 사업자 육성

일본의 EPS소비 및 재활용 현황(서면 발표)

- EPS 소비량: 총 149,500톤(농수산물상자 83,000톤, 가전완충재 44,900톤, 단열재 21,300톤)
 - * 쓰나미 피해로 인한 수산물 유통량 감소, 정부의 친환경 가전포장 캠페인 및 쓰나미 피해지역 가전제품 생산공장 조업중지 등
- 재활용량: 물질 재활용 78,000톤(55%), 에너지 회수 43,600톤(30.7%)
- 쓰나미 피해지역 발생 페스티로플 회수 압축 처리 실시

태국 홍수로 인한 피해 설명(아피팟 회장)

- 스티로폴 생산시설도 침수 피해
- 시가지가 물에 잠긴 동안 스티로폴 보트, 승용차 이동보트 등으로 사용

유럽의 EPS 시장 현황: 로만 회장

(EUMEPS Packaging)

● 소비량

구분	2010년	2011년	비고
평균	1,103천 톤	1,209천 톤	+10%
형물	252천 톤	259천 톤	+2%
계	1,355천 톤	1,469천 톤	+8%

- 시장 상황
 - 단열재 수요 증가(에너지절약 등)로 소비량 상승
 -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년 평균 5.4% 증가 예상
 - 단, 단열재는 화재 문제로 경쟁 소재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음
 - EPS 산업은 일반 대중과 정부로부터 사용에 압력을 받고 있음(환경문제 등): EUMEPS는 문제 해결을 위해 홍보 강화 등 대응

미국의 EPS 시장 현황: 워터 라이터 이사

(EPS-IA)

● EPS 단열재 소비예상

구분	2009년	2014년	2019년
수량	251톤	283톤	333톤

- 2011년 재활용율: 28%
- 기타: 의약품 포장용 EPS 수요는 2019년까지 6% 증가 예상